

“문재인 재벌 편 서면 노·정관계 전면 단절”

전국 11곳 노동법 개악 저지 7·18 총파업 대회 ... 금속, “하반기 강력 투쟁, 개악 반드시 저지”

2020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죽을 각오로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겠다’ 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로 진격했다. 경찰은 병력 2만여 명과 버스를 동원해 국회 주변을 에워쌌다.

민주노총은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 를 열었다. 금속노조 각 지부와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압도적 찬성에 따라 이날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총파업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동결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포함 범위 확대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을 개악하



지도 않았는데, 자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해 취업규칙을 불법으로 불이익변경하려고 시도한다”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자본이 대놓고 노동자의 고혈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자한당과 짜고 임금 삭감에 멈추지 않고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재벌들의 요구까지 들어주려고 한다고 규탄하며 “반드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 를 통해 노·정관계의 전면 단절을 경고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마저 몽개고 끝내 재벌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분

쇄 투쟁뿐이고 노·정관계는 전면 단절할 것이다” 라며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자한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악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의 이름으로 철폐를 내려야 한다’ 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해낸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를 선두로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은 이제 의미가 없다. 최임 1만 원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공정임금, 생활임금 쟁취로 나아가자” 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세 개 방면으로 나눠 국회 진격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국회의원회관 방면으로 행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는 민주당과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리지는 추가 개악안을 들고온 자한당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노동법 개악안을 다루지 못하고 폐회했다.

“지금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이 필요한 때다”

노조, 노동법 개악 분쇄·7.18 총파업 투쟁 결의... “투쟁하지 않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일진대회 도강 행진

금속노조가 7.18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자한당, 자본에 더는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노동법 개악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당과 자한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했다. 자한당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개악안까지 던지고 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살과 뼈까지 발라 먹는 꼴이다”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자본가는 아가리를 벌리고 노동자의 심장까지 집어 먹으려 한다. 현대그린푸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쪼개 넣으며 ‘너희가 좋아하는 문재인이 시킨 대로 했다’라는 막말을 할 정도다”라고 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임금과 단협이 중요하지만, 노동법 개악 등 제도 개악을 막지 못하면 10년, 20년이 괴롭다”라며 “우리 공장은 규모가 크니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과 상관 없단 말 하지 말자.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측의 최저임금 취업규칙 불법 불이익 변경에 맞서 총파업을 선

언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선산업을 재벌에 안기려는 정권과 자본의 음모에 맞서 현대중공업지부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대우조선지회는 92%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사상 첫 조선노동자 공동총파업 조직중이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87.4%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지금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이 필요한 때다.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조합원의 조직력으로 총파업을 지키겠다.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노동조합 도발을 규탄하고 노동자의 미래를 위해 7.18 총파업 나서겠다는 현장 노동자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경연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자본의 현대제철이 6월 28일 도둑놈처럼 노동부 천

안지청에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라면서 “지회는 즉각 자본에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자본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투쟁에 나섰다”라고 보고했다.

이경연 지회장은 “노동법 개악을 막지 못하면 노동자의 미래는 없다. 말과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노조는 투쟁하는 조직이다. 투쟁하지 않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라며 총파업 실천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국회 앞까지 행진을 전개했다.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적폐 청산한다더니 재벌에 달라붙어 노동 적폐로 둔갑한 여당을 규탄했다. 노조는 국회 앞에서 노동 관련 법 개악을 멈춰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다 경찰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노조 대전충북지부 각 지회 간부들과 일진다이몬드지회 조합원들은 서울 마포 일진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 분쇄, 일진 자본 규탄 결의대회’를 연 뒤, 마포대교를 건너 대회장인 여의도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